

0910(토) 다니엘 4-6장 누구의 패배인가?

당시는 지역 신, 국가 신 개념이 강했습니다.
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을 <신들의 전쟁>이라 여겼습니다.
바벨론의 승리는 마르둑 신의 승리요, 하나님의 패배였습니다.
정복국가는 패전국의 신전 기물을 약탈해 가져갔고(1:2, 5:2-4),
자기들의 신전에 두어 신들 사이의 위계를 정리했습니다.

바벨론은 포로들과 그들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(시137 참고).
특히 벨사살은 종교적 축제에 성전 기물들을 사용하며
하나님을 바벨론 신의 시종으로 세우려 하였습니다(5:1-3).
이스라엘의 울분과 절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.
<하나님은 정말 패배하셨는가? 무능하신 분인가?>

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땅, 정치/권력의 핵심에 계셨습니다.
주도권을 쥐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셨습니다(1:2,9, 5:18-31).
아무도 알 수 없고, 왕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.
이방 왕들조차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로 찬양합니다*.
권력은 쇠락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(2:31-45).

* 2:10-11,20-23,28, 3:15, 4:19-33, 6:14,23
2:47, 3:28-29, 4:1-3, 36-37, 6:16, 26-27

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닙니다.
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시며 영원한 주권자 되십니다.
유다는 자기 죄로 망하여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지만
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(2:47, 4:2,17,24,25,32,34).

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?

- ❶ 실패의 원인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?
- ❷ 하나님은 실패(실수)하지 않으심을 믿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다니엘 4-6장